

## 국·외·소·식

### 🌐 슈퍼박테리아 막는 강력 항생제 개발

주로 병원에서 감염되는 항생제 내성 슈퍼박테리아인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을 퇴치할 수 있는 신세대 강력항생제가 영국연구팀에 의해 개발되었다고 BBC인터넷판이 12월 24일 보도했다.

영국 세인트 조지스 대학 의료미생물학교수 앤서니 코티스 박사가 개발한 이 새로운 항생제(HT61)는 코 속에 잠복해 있는 MRSA를 죽일 수 있는 연고형 항생제로 시험관실험과 동물실험에서 이미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내년 60명의 감염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시작될 것이라고 BBC는 전했다.

비강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MRSA의 보균기관으로 영국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환자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MRSA 보균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코티스 박사는 MRSA는 모든 박테리아가 그렇듯이 급속하게 증식하는 박테리아와 증식 없이 지속적으로 잔류하는 박테리아 등 두 종류가 있으며 이 중 감염을 반복하면서 항생제에 내성을 갖게되는 것이 바로 후자라고 밝히고 새로 개발된 이 항생제는 이 후자를 표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항생제가 잘 듣는 급속증식 MRSA를 통제하기 위해 페니실린 같은 기존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이 새 항생제의 투여를 병행하면 치료기간이 현재의 5~7일에서 1~2일로 크게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코티스 박사는 밝혔다.

이 연고형 항생제는 비강에 잠복한 MRSA를 퇴치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 박테리아가 일단 몸 안으로 침투했을 때 이들을 제압할 수 있는 항생제도 앞으로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코티스 박사는 덧붙였다.

지금은 몇 년에 걸쳐 힘들게 항생제를 개발하면 평균 18개월도 안 돼 이에 내성을 갖는 박테리아가 생겨나는 형편이다. 한성간 기자(skhan@yna.co.kr)

2006년 12월 26일

### 🌐 캐나다 환경단체, 야생마 밀렵꾼 '현상수배'

캐나다 앨버타주의 환경단체인 야생마보호회가 현상금 2천 달러를 내걸고 야생마 밀렵꾼을 찾아나섰다고 1월 6일 CTV 방송이 보도했다.

밥 헨더슨 보호회 회장은 방송에 출연해 “캘거리 북서쪽 선더 부근에서 지난 주 새끼 말 1마리를 포함한 야생마 3마리가 총에 맞아 사살된 것이 확인됐다”며 “지난 2년간 이 지역에서 16마리의 야생마가 사냥 총에 죽었음에도 밀렵꾼이 적발된 적은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단체인 우리 스스로 불법 사냥꾼을 찾아내 고발하기 위해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정보제공자에게 줄 현상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보호회 회원들이 야생마를 관찰하고 사진을 찍기 위해 말을 타고 주변지역을 돌다가 까마귀들이 공중에서 선회하는 것을 보고 죽은 말의 사체를 찾아냈다고 그는 밝혔다.

헨더슨은 “3마리 모두 이름까지 지어줄 정도로 우리가 잘 알고 지내던 말”이라며 “특히 새끼 말은 지난해 5월 태어난 뒤 귀여움을 독차지해 회원들의 분노가 더욱 크다”고 전했다.

보호회는 야생마를 보호대상 동물로 지정해 밀렵을 감시하고 처벌해줄 것을 앨버타 주정부에 요구해왔다.

산악관린인 릭 스미씨는 “허가받지 않은 야생동물 사냥은 불법이며 말들이 들판에서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지역에는 19세기말 목재 벌채작업장에서 방목된 것으로 추정되는 말의 후손 200마리 가량이 야생 상태로 서식하고 있으며 주정부 규정상 야생동물도, 가축도 아닌 것으로 간주돼 사실상 관리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캐나다 밴쿠버>오룡 통신원(oryong@yna.co.kr)

2007년 1월 7일

### 2년간 2천km 방랑 애완견 주인 품으로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2년 전 잃어버린 애완견이 약 2천km 떨어진 일리노이주에서 발견돼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다.

12월 15일 시카고 트리뷴은 플로리다주 탬파에 거주하는 앨리스 베인스가 전날 밤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애완견인 샘과 2년 만에 상봉하는 기쁨을 누렸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4년 허리케인으로 집 담이 파손됐을 때 골든 리트리버종인 샘을 잃어버렸던 베인스는 이후 백방으로 수소문 했으나 샘을 찾지 못했었다며 “샘을 다시 보다니 믿을 수가 없다. 정말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감격해했다.

트리뷴은 주인을 잃어버린 샘이 플로리다주에서 어떻게 1천200마일(약 1천931km)이나 떨어진 일리노이주까지 오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며 이번주 초 일리노이주 맥헨리 카운티의 작은 마을인 존스버그에서 방황하다 한 주민에 의해 맥헨리 카운티 동물 보호소로 보내졌다고 전했다.

이후 동물 보호소측은 큰 기대 없이 의례적인 확인작업으로 개의 소유자 정보를 담아두는 마이크로칩의 존재 여부를 검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마이크로칩이 발견되면서 샘이 강아지였을때 이 칩을 이식했던 수의사와도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 허리케인 피해 이후 샘을 찾기 위해 종종 수의사에게 전화를 해왔던 베인스는 지난 13일 오후 5시께 수의사로부터 “일리노이주에서 샘을 찾았다”는 전화를 받고 즉시 시카고행 비행기를 예약한 뒤 오헤어 공항으로 출발했다. 베인스는 탬파의 집에 있는 아들 브렛(9)도 샘과의 상봉을 기대하며 무척 들떠 있다고 전했다. 맥헨리 카운티 동물 보호소의 수의사인 에딘 메하노비치 박사는 “샘이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이동했는지 알 수 없다”며 “샘은 40달러짜리 마이크로칩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한편 맥헨리 카운티측은 비싼 항공료를 지불하고 먼거리를 비행해 애완견을 찾으려온 점을 감안, 베인스에게 떠돌이 개 주인이 통상 부담해야 하는 45달러의 수수료를 면제해줬다.

<미국 시카고> 이경원 통신원(kwchrislee@yna.co.kr)

2006년 12월 16일

## 국 · 내 · 소 · 식

### 🔄 내년부터 애완동물 인식표 안 붙이면 벌금

동물학대행위 벌금 500만원으로 상향

시·도지사 재량으로 개·고양이 등록제 시행

내년부터 반려동물(애완동물)에 인식표를 붙이지 않고 외출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각 시·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해당 지역내 개·고양이와 소유주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할 수 있다.

농림부는 1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맞춰 곧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제정될 예정이나, 실제 적용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초부터 시작된다.

개정안은 인식표 부착과 안전 장구 휴대 등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할 때 소유자가 꼭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고 건전한 거래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특별한 관리 법규가 없는 동물 판매업, 동물장묘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준수사항을 정해 교육을 받도록 했다. 등록 및 교육 의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지역별로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내 개·고양이와 소유주를 일괄적으로 시장 및 군수에게 등록하게 하고, 시·도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특정지역내 사육 및 출입제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도입을 결정한 등록제를 위반하면 3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동물 학대 관련 규정도 강화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 살아있는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는 것 등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선도 현행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올렸다.

무분별한 동물 실험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실험 시설의 경우 자체적으로 동물윤리위원회를 뒤편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총괄토록 했다.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기관도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 농림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보호 감시관'과 '명예 감시관' 등을 위촉, 동물 학대 행위를 감시하게 할 수 있다. 동물 학대 신고를 받은 감시관은 피해 동물의 격리 또는 치료기관 인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운송시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이동 중 사료 공급, 차량 구조 등에 관한 준수 사항도 담았다.

농림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사육 가정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버려진 유기(遺棄) 동물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동물 학대 관련 처벌도 강화했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호경 기자(shk999@yna.co.kr)

2007년 1월 8일

## 🐾 야생동물 생태통로 이동실태 '확인'

유도펜스 설치 등 보완 필요

최근 효용성 논란을 낳고 있는 생태통로(에코 브리지:Eco Bridge)가 야생동물들의 이동통로로 실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월 5일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관내(대전·충남북)에 설치된 15개 생태통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9곳에서 고라니, 너구리, 멧토끼 등 야생동물의 이동흔적과 배설물 등을 발견했다.

또 야생동물의 통로와 사람들의 등산로가 관목 등으로 분리돼 있는 등 관리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야생동물들의 이동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펜스'나 관목, 돌무더기 등의 설치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15곳 가운데 10곳에 유도펜스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4곳은 관목 등 나무의 추가적인 식재가 시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양군 정산면 군도1호선에 설치된 생태통로는 사람의 통행이 잦아 통로에 소로길이 만들어져 사람의 통행 제한을 위한 생태통로 안내판 등 설치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충북 보은군 203호선 도로는 생태통로 진입부분이 급경사여서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밖에 청주시 모충초등학교에서 산남주공2단지를 연결하는 생태통로는 인근 주민의 산책로 및 등산로 확보를 위해 설치된 보도육교여서 생태통로 지정에서 제외했으며 충북 청원군 540호선 도로의 생태통로는 충북도와 청원군이 중복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된 내용은 자치단체, 도로공사 등 관리기관에 통보, 부족한 내용을 보완토록 했다"며 "앞으로도 1년에 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관리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강환경청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야생동물의 행동 습성을 고려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주변 식생과의 조화여부 ▲시설물 사후 관리 상태 등을 파악했다. 윤석이 기자(seokye@yna.co.kr)

2007년 1월 5일

## 🐾 구미시 애견 테마파크 조성 검토

경북 구미시가 애견관련 테마파크 조성을 검토기로 했다.

구미시는 1월 5일 "지난해 산업자원부의 지역혁신특성화 포럼사업으로 선정돼 애견문화 테마파크 조성 과 연계산업 발굴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지 선정이나 구체적인 비용 등 전반적 계획 수립은 애완동물보전관리과가 있는 경주의 서라벌대학이 주도하고 있다.

산자부는 지역혁신특성화 포럼사업 대상으로 전국에서 18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경북도내에서는 구미의 애견 테마파크사업과 청도의 소싸움축제 관련 사업이 대상에 포함됐다.

구미시는 해평면에 주인이 술에 취해 불이 난 줄 모르고 잠에 빠져 있자 기르던 개가 낙동강 물에 몸을 적서 불을 끄고는 대신 죽은 일을 기려 만든 의구총(義狗塚)이 있어 이와 연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애견

관련사업 분야를 발굴해 새로운 관광문화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사업 추진 유무를 확정지을 계획”이라며 “현재는 과제 연구단계”라고 말했다. 손대성 기자(sds123@yna.co.kr)

2007년 1월 5일

### 탈출 원숭이 2년여만에 붙잡혀

전북 남원에서 동물원을 탈출해 농가를 전전하며 개밥과 과일 등을 훔쳐먹던 원숭이가 1년10개월 만에 붙잡혔다.

12월 24일 전북 남원소방서와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남원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 남원시 노원동 M교회앞 계단에 앉아있던 원숭이 두마리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붙잡혔다.

붙잡힌 원숭이들은 16~17년 생으로 추정되며 포획 당시 몸이 야위고 허약한 상태였다고 구조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들 원숭이는 지난해 3월 남원랜드 동물원에서 우리를 채운 자물쇠가 느슨한 틈을 타 탈출을 감행했던 일본 원숭이 5마리중 붙잡히지 않았던 나머진 것으로 구조대 측은 보고 있다.

구조대 관계자는 “이들 원숭이가 지난해부터 민가를 돌며 먹이를 찾아다니는 바람에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라 수차례 포획을 시도해왔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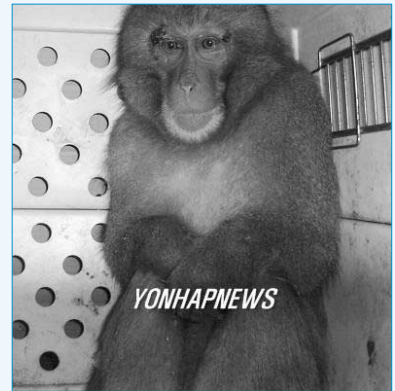
주민 김모(46)씨도 “원숭이들이 농가로 내려와 개밥을 훔쳐먹거나 마당에 열린 감 등 과일을 따먹기도 했다”며 “최근엔 아이들이 던져준 과자를 받아먹는 모습이 목격되는 등 원숭이를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구조대는 해당 동물원이 최근 문을 닫은 데 따라 붙잡은 원숭이들을 동물보호협회측에 넘겨 새 보금자리를 찾아줄 계획이다.

남원랜드 관계자는 “동물원은 폐쇄하고 놀이기구만 운영하고 있다”며 “원숭이를 돌려받아도 이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유리 기자(newglass@yna.co.kr)

2006년 12월 24일



### 南北, 개성서 '합동진료시대' 열어

각 4~5명 의료진 파견, 산부인과·외과·일반과 등 담당

남북한 의료진의 합동진료시대가 11일부터 개성공단에서 본격적으로 열린다.

개성공단 내 의료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그린닥터스 정근 사무총장은 1월 9일 “오는 11일부터 120평의

개성병원(일명 남북의료협력병원)에서 남북한 의료진이 합동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남북간에 단발적인 의료교류는 있었지만 한 병원에서 합동으로 진료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남북한 의료계의 의학지식 교류 등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남측에서는 내과와 외과, 치과를 주로 진료하고 북측은 산부인과와 외과, 치과, 일반과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특정날짜에 맞춰 안과와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한의원 등의 특수과목 치료도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북측에서는 4~5명의 의료진이 수개월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남측에서도 4~5명의 의료진이 개성병원에 상주하게 되며 앞으로 간호사와 응급요원을 포함해 25~30명 정도의 남북한 의료진이 함께 진료를 담당하게 된다.

정 사무총장은 “남북한 의료진이 한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 본격적인 남북의료협력시대가 열리게 된 셈”이라며 “개성병원을 통해 남북한 의료계의 차이를 줄이고 북측에 많은 의학지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간에는 의료수준이나 용어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북측에서도 앞으로 많이 배우겠다는 의지가 크다”며 “우리도 북한이 앞서고 있는 고려의학(한의학) 등에서는 배우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근 사무총장은 “이번 사업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진료를 하는 종합병원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린닥터스는 개성공단에 2005년 1월 응급의료소를 개소해 지금까지 남북 근로자 2만여명을 무료로 진료해 왔으며 2008년 초에는 150병상 규모의 개성종합병원을 열 예정이다.

특히 의료봉사조직인 이 단체는 그동안 개성주민의 연탄가스중독 치료와 항생제 무상지원 등을 통해 북측과 신뢰를 쌓아왔다. 장용훈 기자(jyh@yna.co.kr) 

2007년 1월 9일

전 기사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